

해외양계뉴스



브라질

VIV Lattin American 박람회 개최

브라질에서는 지난 5월 8~10일 수도인 쌍파울로의 EXPO Norte에서 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VIV Lattin American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전세계에서 236개 업체(국내 89, 국외 147)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전시면적 14,000m²에서 개최되었는데 닭, 돼지를 중심으로 유전적인 기초분야에서 부터 최첨단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는 기존 브라질에서 개최되어 오던 무역박람회 (FLAIAS) 보다 외국 참여업체수가 4배나 많아 성공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VIV American 박람회는 유럽(네덜란드), 아시아(태국) 박람회와 함께 3개대륙에서 개최되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아메리카 지역의 양계산업 특히, 닭고기 가공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았다. (FAD)

일본

수입식육, 계육 원산국(지) 표시 의무화 추진

일본은 최근 영국에서 문제가된 광우병 파동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수입되는 식육과 계육에 대해 원산국(지) 표시 의무화 방침을 마련, 빠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鷄鳴)

이스라엘

수입 자유화

이스라엘은 금년 1월부터 닭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이스라엘측은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데 닭고기의 경우 20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

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관세율 인상은 농업분야의 타격을 최소화 하고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자국식품을 선호하는 국민성에 힘입어 수입개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WP)

미국

러시아 닭고기 분쟁 해결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에 5억5천만달러 상당의 닭고기 67만4천4백48톤을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닭고기 수출물량의 33%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러시아는 자국의 양계산업 보호 측면에서 위생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수입닭고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닭고기 무역분쟁이 있었으나 미국측과의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격을 보아 정상적인 닭고기 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PI)

네덜란드

계란 수퍼마켓 소비 18% 증가

'95년도 네덜란드의 계란가격은 '94년에 비해 4.5%가 하락한 결과 수퍼마켓 소비가 18%나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95년 네덜란드의 계란소비는 수퍼마켓을 통해 68%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5년 네덜란드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75개로 이중 100여개는 가정소비 이며 나머지는 가공관으로 소비되었다. (W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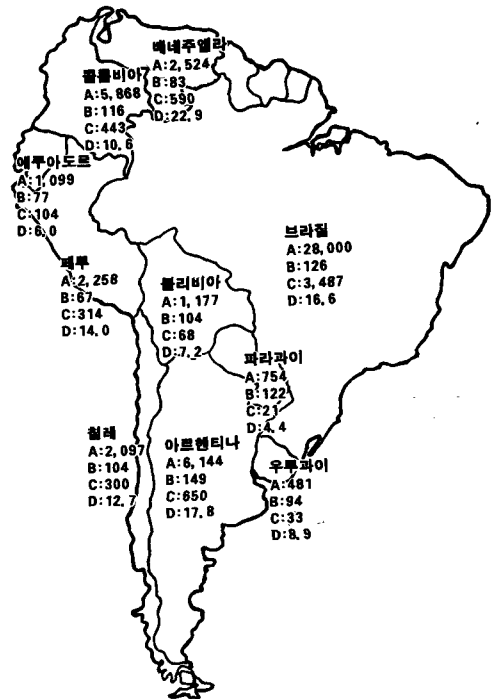
남아메리카

양계산물 생산, 소비량 비교

'94년 조사된 남아메리카의 닭고기 소비량은 1인당 평균 12kg, 계란소비량은 104개로 나타났다. 도시화에 따른 소비량 증가에 힘입어 매년 4%의 양계산업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브라질의 경우 세계 닭고기 생산 3위, 계란생산 5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70년 닭고기 소비량이 2.3kg에서 '94년 16.6kg으로 큰폭의 증가가 되어온 것을 볼 수 있다. (WP)

'94년 남아메리카 계란, 닭고기 생산 및 소비추이



A: 계란 생산량(백만개) B: 1인당 계란소비량(개/년)
C: 닭고기 생산량(천톤) D: 1인당 닭고기 소비량(1kg/년)